

HD현대, 1분기 영업익 7936억... “조선·정유 등 실적 견조”

매출 16.6조... 사업 전반서 ‘호실적’
조선·해양, 4분기 연속 흑자 달성
건설기계, 시장 침체여파에 하향세

HD현대가 주력 사업인 조선과 정유업의 호황에 힘입어 올해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

HD현대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793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8.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5일 공시했다.

매출은 16조514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5083억원으로 319% 늘었다. 정유와 전력기기 등 주요 사업 전반에서 견조한 실적을 거둔 가운데 조선 부문이 흑자 기조를 이어간 데 따른 것이다.

사업별로는 조선·해양부문의 HD한국조선해양의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9% 증가한 5조5156억원을 달성했다.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의 매출이 실적에 반영되면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선별 수주에 따른 선가 상승분과 생산 안정화에 따른 비용 절감으로 0.6% 소폭 감소한 1602억원으로 4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HD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인 HD현대중공업은 전년 동기 대비 13.5% 늘어난 2조9877억원, HD현대미포는 10% 증가한 1조5591억원, HD현대삼호는 22.7% 오른 1조7056억원 매출을 거뒀다.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도크에서 선박이 건조되는 모습.

/HD현대중공업

특히 HD현대삼호가 전년 동기 대비 223.6% 증가한 186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견조한 실적 흐름을 주도했다.

에너지 부문의 HD현대오일뱅크는 유가 및 정제마진 상승으로 1분기 매출 7조8788억원과 영업이익 305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각각 6.5%, 17.98% 증가한 수치다.

건설기계 부문의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글로벌 건설기계 시장의 긴축 흐름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하향세를 나타냈다.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7.2% 줄어든 2조2029억원, 영업이익은 29.7% 감소한 1629억원이다.

HD현대일렉트릭은 전력인프라 확대 추세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40.9% 늘어난 매출 8010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178.2% 증가한 1288억

원을 달성하며 영업이익률 16.1%를 기록했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친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선박 부품서비스 사업 호조와 디지털 제어 사업의 확대로 전년 동기보다 19.3% 늘어난 383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영업이익은 13.2% 증가한 515억 원을 기록해 13.4%의 영업이익률을 남겼다.

HD현대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선별 수주 전략과 맞춤형 영업전략을 통해 성장을 이어갈 수 있었다”며 “조선 부문에서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가 지속되고 있고, 정유·전력기기 상황이 안정적인 흐름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수익성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호 기자 ysw@metroseoul.co.kr

CJ대한통운, 로봇 ‘스팟’ 택배배송 실증

기아·현대건설 등과 로봇개 테스트

CJ대한통운이 택배 라스트마일(Last Mile)을 위한 배송로봇 도입을 위해 테스트를 한다.

분류·포킹 등 물류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뿐 아니라 최종 배송 단계까지 물류의 모든 단계에 걸쳐 첨단 기술을 적극 접목해 미래 물류기술 구현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CJ대한통운은 기아, 현대건설, 로봇 전문스타트업 다이브와 함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개 ‘스팟(SPOT)’을 활용한 택배 라스트마일 로봇배송 실증 사업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실증 사업은 고객에게 마지막으로 상품이 전달되는 라스트마일 배송 단계에서 로보틱스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진행했다.

실증 사업은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삼송’에서 진행됐다. CJ대한통운 택배기사가 차량에 스팟과 택배 상품을 상차해 배송지로 이동한 뒤 스팟과 택배 상품을 하차시키면 스팟이



CJ대한통운이 로봇 ‘스팟’을 활용한 택배배송 실증에 나서며 미래형 물류 서비스 구축에 나섰다.

/뉴시스

적재함에 택배를 실은 채 고객의 집 앞까지 물품을 배송하는 방식이다. 배송 완료 후 스팟은 차량으로 복귀해 남은 택배를 실은 후 추가 배송을 이어간다.

CJ대한통운은 실증 사업을 위해 필요한 택배차량과 물량 등 제한 환경을 제공했으며, 실제 택배 배송이 안정적인 고객에게 전해지며 성공적으로 테스트를 마쳤다. 이번 테스트를 통해 CJ대한통운은 실제 배송 환경에서 로봇 도입 시 효율성과 개선점 등 데이터를 수집하고 향후 라스트마일 서비스 고도화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

SK C&C, AI·RPA 결합 ‘금융 AI 인턴’ 선보

자산 관리 등 복잡한 업무도 자동화

SK C&C가 26일 인공지능(AI)과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를 결합한 금융사맞춤형 하이퍼오토메이션(초자동화)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선보였다. 특히 금융사 영업점 직원에 특화했다.

SK C&C는 최근 은행·카드사·보험사·증권사·캐피탈 등 다양한 금융사별 업무 특성에 최적화된 ‘금융 AI 인턴’을 개발했다. 기업 특화 AI 솔루션 ‘솔루어(Solur)’와 종합 디지털 RPA 플랫폼 ‘드리고(DREAGO)’ 등 AI 디지털 전환(DX) 플랫폼을 결합했다.

SK C&C는 다양한 디지털 자동화 기술들을 융합해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자동화 수준을 높임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는 하이퍼오토메이션

을 금융 분야부터 실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융 AI 인턴’은 모바일 창구부터 자산 관리, 재무 관리와 같은 금융 공통 업무 영역뿐만 아니라 ▲은행 여·수신 및 외환 업무 ▲카드 발급, 대금 정산 업무 ▲보험 대면 채널, 계약 관리, 보험금 청구 업무 등과 같은 금융 분야별 영업점 업무 특성을 습득했다.

‘금융 AI 인턴’은 복잡한 금융 업무를 직접 처리해 영업점 직원들이 갖는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처리 시간을 단축시킨다.

이전 국내 금융사들이 개발, 활용한 RPA봇 등은 복잡한 금융 업무에는 한계가 있었다. RPA가 늘어나면서 여러 RPA 봇 중 어떤 봇을 선택해 구동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도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더했다.

/김서현 기자

SKT ‘AI 경영시스템’ 획득 “글로벌 경쟁력 강화”

SK텔레콤이 국내 통신사 최초로 인공지능(AI)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IEC 42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ISO/IEC 42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공동으로 제정한 인공지능 경영시스템 관련 글로벌 표준이다. 기업과 조직이 윤리적 책임을 바탕으로 AI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부 평가 항목은 ▲AI 방침 ▲AI 리스크 평가 ▲AI 리스크 처리 ▲AI 영향 평가 ▲AI 윤리 준수 및 규제 대응 ▲AI 관리 과정의 투명성 등이다.

SK텔레콤은 이번 인증 획득을 통해 신뢰성과 안전성을 기반으로 AI 리스크 관리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SK텔레콤 AI 경영시스템을 통신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신뢰받는 글로벌 AI컴퍼니로 도약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라인’ 개인정보 유출 후폭풍 日 “네이버 지분 팔고 나가”

日 정부, ‘라인’ 네이버 지분 청산 요구
개인정보 유출 후 “의존도 순차적 축소”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후폭풍이 불며 네이버의 경영권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빌미로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 측에 자국 기업인 소프트뱅크 측 지분 확대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오는 7월1일을 시한으로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일본 마이니치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지난 17일 메신저 앱(APP) 라인(LINE)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라인야후에 두번째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네이버 지분 판매를 요구하며 이를 7월1일까지 진척사항을 보고하도록 했다. 첫 번째 행정지도는 지난 3월로, 정보유출 후 네이버로 접속된 사실이 유가 됐다. 총무성은 네이버의 지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고 자국 기업인 소프트뱅크에 지분 추가 확보를 요구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의 관계사로 일본 소프트뱅크와 함께 각각 50.0%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합작한 A홀딩스 산하 기업이다. 네이버가 개발한 메신저 라인과 소프트뱅크가 운영 중인 ‘야후(YAHOO)’를 서비스 한다. 현재 라인은 일본에서 한국의 카카오

톡을 달성하며 영업이익률 16.1%를 기록했다.



일본에서 라인(LINE)은 9600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한 ‘국민’ 메신저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씩 각각 지분을 소유한 A홀딩스 산하 라인야후가 서비스 중이다.

/라인

에 견주어지는 수준으로 전국민이 사용하는 메신저 앱이다. 지분 상실에 따른 네이버의 손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다.

일본 총무성의 요구에 라인 야후는 “네이버에 대한 의존도를 순차적으로 축소하고 지분 청산할 예정”이라며 “2026년 12월 시스템을 완전 분리하겠다”고 밝혔으나 총무성 측은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엄중함과 별개로 IT업계 관계자들은 지분 정리 요구 조치는 “이례적”이라며 놀라고 있다. 앞서 미국 하원이 바이트댄스가 서비스하는 틱톡(TikTok)의 매각을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사례는 대중(對中) 견제를 위한 정치적 행보로 풀이할 수 있었던 점과 달리 이번 사태는 정치적이지 보다는 자국 기업에 대한 보호주의적 태도로 분석된다.

/김서현 기자 seoh@

삼성, 여름 겨냥 ‘무풍 에어컨’ 생산 풀가동

AI 절약모드, 에너지 사용량 30% 절약

삼성전자가 여름을 앞두고 무풍 에어컨 생산라인 풀가동해 국내 에어컨 시장 공략 강화에 나섰다.

25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2016년 세계 최초로 선보인 무풍에어컨은 누적 판매 1000만대 흥행을 이어가고 있으며, 흥행 여세를 몰아 올해 2월 2024년형 에어컨 신제품을 출시했다.

2024년형 ‘비스포크 무풍에어컨 켈

러리’ 스탠드형은 전 모델이 에너지 소비효율 1~2등급을 획득했다. 스마트싱스에서 인공지능(AI) 절약 모드를 선택하면 에너지 사용량을 30%까지 절약할 수 있다.

빅스비를 적용해 리모컨 없이 음성 명령으로 다양한 기능을 손쉽게 실행할 수 있다. 에어컨을 켜고 끄거나 온도를 조절하는 등 간단한 음성 제어는 와이파이 연결 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

/구남영 기자